

제17518호 2판

2006년 8월 5일 토요일

1

뮤지컬 스타 '전성시대'

박해미·조승우·오만석 등 안방·극장가 사로잡아

박해미

'빅 3'로 불리는 송강호·최민식·설경구를 비롯, 이문식·정재영·신하균 등 충무로에서 주목받고 있는 배우들은 모두 연극배우 출신이다. 이처럼 연극계는 오랜 기간 충무로에 양질의 배우를 공급해 왔다.

최근에는 뮤지컬 스타들이 안방과 극장가를 사로잡고 있다.

TV 드라마 쪽에서는 박해미가 단연 돋보인다. 말도 많고 인기도 높았던 드라마 '하늘아이'에서 주인공 자경의 의붓어머니 '배득이'로 출연한 박해미는 뮤지컬계의 베테랑 배우다.

지난 2004년 '맘마미아'를 통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던 박해미는 현재 재공연 중인 '맘마미아'에서도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배득이'를 보려고 공연장을 찾는 중년 여성들이 대폭 늘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한국뮤지컬 대상에서 '헤드윅'으로 최우수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실력과 배우 오만석은 '신돈'에 이어 윤은혜와 함께 KBS 미니시리즈 '포도밭 그 사나이'에 출연중이다. 수더분한 경상도 사나이 역을 맡은 그는 좌충우돌 윤은혜와 암송달콤 사랑을 엿여갈 예정.

연극 '이'에 출연하기도 했던 오만석은 뮤지컬 '이' 무대에도 오를 계획이며 '겨울나그네' '김종욱 찾기' 등을 통해 팬들을 만났다.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으로 데뷔했던 조승우 역시 뮤지컬을 통해 내

공을 쌓았다. 김민기가 이끄는 학전에 들어가 '지하철 1호선' 등에 출연했던 조승우는 이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카르멘' 등에서도 뛰어난 노래솜씨를 발휘했다.

그는 '조승우 신드롬'을 일으켰던 '지킬 앤 하이드'로 한국뮤지컬 대상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생결단' '너는 내운명' 등을 통해 영화배우로 완전히 입지를 굳힌 황정민도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브로드웨이 42번가'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출신이다.

MBC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이'를 통해 얼굴을 알린 강지환 역시 뮤지컬 '그리스' '록히데리 픽쳐쇼' 등에 출연하며 대뷔했다.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불꽃놀이'에서 한채영과 함께 주연을 맡았던 강지환은 영화관까지 진출, 김하늘과 멜로 영화 '그날의 분위기'를 찍을 예정이다.

드라마 '닥터 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등에 출연했던 이종혁 역시 뮤지컬에서 내용을 키웠다. 최근에는 신성우 등과 함께 체코 뮤지컬 '드라큐라'에 당당히 주연으로 출연했다.

또 이덕화·이혜영 등이 출연중인 KBS 시트콤 '웃는 얼굴로 돌아보라'에는 '명성황후' '돈키호테'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김성기가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시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충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부 2200-552
사회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6>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오경을 준수합니다

광주일보

광주일보